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48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는 1950년 이후 매년 3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3월은 졸업 입학의 계절

'아국(我國)의 문화발전에 따라 출판사업은 일익(日益)진전(進展)하는 과정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쇄에 대한 정밀기술자가 태무(殆無)한 관계로 사계(斯界)로 발전을 기할 수 없음을 우려하여 문교부에서 '운크라' 재단기금으로 본교에 아직 아국(我國)에 없는 인쇄과를 창립하여 정밀인쇄 기술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사계(斯界)의 대 발전을 도모하여 일절시설을 완비하게 되었고, 정밀한 연구와 다년간 경험이 풍부한 교수부를 구성하여 금년도 신학기부터 좌기요령에 의하여 학생을 모집함'

단기 4288(1955)년 3월5일자 인쇄문화시보 4면에는 국내 최초의 국립인쇄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인쇄과 학생 모집 공고가 나왔다. 한편 같은 해 3월25일에는 대한인쇄고등기술학원이 제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국립교육기관으로서 서울공고가 최초로 되겠지만 전체 인쇄교육역사를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대한인쇄고등기술학원의 졸업생들을 최초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쇄기술자로 기록할 수 있겠다.

국내 기술 제작 인쇄기 대 인기

인쇄기계에 관한 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업계가 참으로 부러워 할 만한 뉴스가 1958년 3월25일자 인쇄문화시보 4면에 실렸다. 내용인 즉 '서울시 서대문구 만리동에 위치한 송전기계제작소에서 제작된 국산활판인쇄기가 실수요자인 인쇄업계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사륙전지사이즈를 인쇄할 수 있는 송전기계제작소의 활판인쇄기가 대한교과서 외에도 동아출판사, 서울신문사 등에서도 사용되었다고 전한 것으로 보아 이 기계는 단순한 보급형 기계의 수준이 아닌 일정 이상의 품질을 실현했음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알 수 없는 사실은 송전기계제작소가 1970년 6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에 '창립50주년 사은대매출'이란 광고를 냈다는 것이다. 이 광고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송전기계제작소의 설립 년도는 1920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때라면 일제시대인데, 그렇다면 이 회사의 원래 주인은 일본이거나 아니면 적산 기업쯤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송전기계제작소는 활판인쇄기 이외에도 오프셋 인쇄기까지 생산했으며, 69년에는 각종 인쇄기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을 연마할 수 있는 최신 기계를 도입하는 등 국산 인쇄기계 제작에 열의를 보였다.

인쇄기 사는데 필요한 돈 36만원

오프셋 인쇄기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 단돈 36만원. 1969년 3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 3면에는 36만원이면 인쇄기를 살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35년 전이었기 때문에 화폐가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오프셋 인쇄기 값 36만원의 진실은 년부(할부) 판매에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 인쇄물



경복궁 춘당지의 여인

- (주)삼화인쇄

1955년 경복궁 춘당지에서 찍은 흑백사진을 망판의 각도를 달리하여 적색, 청색, 황색, 흑색으로 판을 만든 후 인쇄를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컬러인쇄 제1호다.

- 유기정회장 자서전에서

있다. 송전기계제작소가 일본의 오프셋 기계와의 대결에서 유리한 국면을 점령하기 위해 내 놓은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였다. 송전기계제작소는 36만원을 일시불로 받은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 2년 거치 7년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내세웠다.

인쇄업은 정신나간(?) 사람들이 하는 사업

1971년 3월15일 인쇄문화시보 1면에는 삼성인쇄(주) 채복기 사장의 '인쇄요금 현실화를 위한 처방과 대책'이라는 제안이 실렸다. 채복기 사장은 "요즈음 인쇄업자들을 가리켜 뭐라고들 하는지 아세요? 정신나간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라고들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가령 용지 값이 백만원 소요되는 인쇄물이 있다고 할 때 용지 값도 안 되는 8~90만원으로 투매를 다반사로 하고 있어요"라며 인쇄업체의 덤핑 행위를 비난했다. 채 사장은 덤핑 행위가 자행되는 이유로 남이 하니깐 나도 한다는 식으로 하는 계획 없는 시설증대 행위,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를 꼽았다. 덤핑 행위를 자제하자는 이야기는 이듬해는 1972년 3월 15일자 신문에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 조합 박재선 이사장은 기계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인쇄업자들의 덤핑 공해가 가장 큰 공해라고 지적했다.

직지가 없어서...

금속활자는 1972년 박병선 박사에 의해 공식 존재가 밝혀지기 전에는 '상정예문'이 1234년에 인쇄되었다고 전해질 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앞선 활자 및 활판의 실체가 없었다. 1961년 3월20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20일은 동활자시주일'이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내용인 즉, 계미년(1403년) 2월19일에 태조가 내탕금을 내어 활자를 만들라는 칙령을 내렸는데 그 날짜가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20일이라는 것이다. 사실 직지의 실물이 발표된 이래 조선시대의 활자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기사로 미루어보아 직지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조선시대 활자에 대한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의리하면 인쇄인

1977년 3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에 인쇄인들의 동 업종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됐다. 신문은 1977년 2월 18일에 (주)한성정판대

표(곽도)에 화재가 났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한성정판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벌어져 3월 10일 현재 25만원이 답지했다는 가슴 따뜻한 뉴스를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당시 돈 25만원은 쌀값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략 167만3천5백원 정도 된다고 한다. 굳이 금액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정성이 인쇄인의 의리와 함께 전달되었을 테니 말이다.

인쇄 배우면 100% 취업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취업이 어려운 때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다. 1979년 3월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같은 해 2월 24일 수료식을 가진 인천직업훈련원 인쇄과 정규과정 35명 전원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기쁨을 누렸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들 졸업생 전원은 같은 해 2월 22일에 실시되었던 인쇄기능사 2급 수료검정 과정에 전원이 합격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 2명은 신구전문대학으로 진학했으며, 나머지 18명도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00% 취업이 부럽기만 할 청년 실업자 여러분! 지금도 인쇄업은 젊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진출을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두산 그룹! 인쇄가 그렇게 좋아

'두산그룹의 '동아인쇄' 인수 반대성명 발표' 1985년 3월 1일자 인쇄신보는 1면 머리기사와 광고 면을 할애해 재벌그룹의 인쇄업 진출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쇄협회, 인쇄연합회, 서울조합을 비롯한 12개 조합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인쇄업계는 상업인쇄업이 중소기업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당국의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OB맥주, 코닥필름 등 두산 제품의 불매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정한 중소기업조정법에 따라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쇄업에 대기업인 두산 그룹이 진출하게 된 데는 '현(당시) 수준의 사업규모이상의 추가적 신 증설을 제한하고 현 중소사업인쇄업계의 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용우기자)